

## ‘傳’고녕가야왕릉과 왕비릉의 위치\*

— 역사와 인식의 거리 —

이성운(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기조(문헌, 세계불학원)

### 국문초록

‘傳’고녕가야왕릉과 왕비릉의 위치라는 주제 아래 논의를 펼쳤다. 기록의 빈약 속에 역사와 신화가 혼재된 상태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적지 않은 것 같다.

고녕가야의 도읍이 함창일 수 없다는 그간의 역사 인식 속에서, 태조왕릉과 왕비릉이 적어도 400년 이전에 복원 정비되어 있고, 『삼국사기』를 위시한 후대 사서의 한결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함창의 고녕가야는 역사의 중심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

고녕가야의 역사는 신화로 각색되었지만 인간의 삶으로 분명하게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1일(토) 경북 상주시 함창읍사무소에서 한국불교사학회와 한국불교사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전개되었다. 공갈못의 공갈이 고녕가야의 음악(音約)이라고 파악한 신채호의 고녕가야 함창설은 설득력이 적지 않다. 고녕가야의 왕도로 알려진 왕도골, 대가산 등 고녕가야 왕들과 관련한 지명은 고녕가야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 공갈못이 자리하고 있다.

고로왕릉과 왕비릉은 16세기말 비석이 발견되어 복원되었는데, 태조왕릉과 왕비릉은 동서로 자리하고 있다. 서쪽의 왕릉은 계좌(癸坐)를 하고, 동쪽의 왕릉은 임좌(壬坐)를 하여, 200여 미터 相距한 왕과 왕비가 마치 여덟팔자(八) 형식으로 왕도와 왕도 앞의 고분군을 바라보며, 지켜주는 형국이다. 두 능의 위치와 좌향이 조성 당시부터 그랬는지 16세기 이후 정비되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모습은 그렇다.

3세기 중반에 사라진 고녕가야이지만 고로왕의 후예들은 그 조상을 잊지 않고 왕릉과 왕비릉을 지키며 2천여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번성해나가고 있다.

주제어 : 고녕가야, '傳'고녕가야왕릉, 삼국사기, 삼국유사, 육가야, 공갈못

## - 목 차 -

- |                  |                  |
|------------------|------------------|
| 1. 서언            | 3. 고로왕릉과 왕비릉의 위치 |
| 2. 고녕가야의 흔적과 아우라 | 4. 결어            |

## 1. 서언

“우리 역사상에 비상히 시비 많은 문제”<sup>1)</sup>가 삼한이라는 신채호의 언급이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삼한 문제와 이에 더해 육가야의 일원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고녕가야’ 문제는 시비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의 정통 고대사에서 희미하게 조차도 다루이지 못하고 있는 고녕가야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인식이 국내 사학계에 팽배하고, 그 주장의 논리 또한 결코 허술하지 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인다.

차례에 “제1회 경북 상주 함창 문경 고녕가야 학술대회 겸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세미나”를 열고 기초 발제를 비롯하여 “상주 함창 고녕가야의 정치체와 권역의 재검토”, “상주 함창 고녕가야의 태조 왕릉과 왕비릉”,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고분군의 실체”, “상주시 함창읍 오봉산 남산고성의 검토”라는 네 주제를 발표하였다. 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세미나의 목적은 고녕가야의 실체성을 드러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권역이니 왕릉이니 고분군이니 고성이니 하는 것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고녕가야 나라 이야기는 역사로서가 아니라 시조신화와 같은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녕가야가 아직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단지 전해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살펴볼 태조왕릉도 그것을 증명한다. 그 명칭이 “전(傳)고령가야왕릉”이다. 1979년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고녕가야왕릉’이 아니라 “전고령가야왕릉”으로밖에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권역이니 왕릉이니 고분군이

---

1)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117.

니 고성이니 하는 개념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다. 고녕가야의 위상을 복원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필자에게 부여된 소주제는 왕릉과 왕비릉에 관해서이다. 문제는 왕릉과 왕비릉이라고 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현재 ‘전’이라는 관형어가 붙어 있다. 고로(古露)왕의 능이라는 전설 속의, 단순히 전해지는 왕릉이라는 의미에서 ‘전’자의 관형어를 달고 함창읍 증촌동에 나란히 누워 있는 고로왕과 왕비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까. 옛 고로왕과 왕비의 능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는 왕과 왕비의 역사적 복원이 조금이라도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문을 시작해 보자.

필자는 이 글말에서 “전고녕가야왕릉과 왕비릉의 위치”라는 논제 아래 “역사와 인식의 거리”는 부제의 방식으로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位置)’는 지리적 위치는 당연하고, 역사적 위치, 인식적인 위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왕릉과 왕비릉에 대한 일체의 서술은 허언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교의 실천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례의 역사와 철학을 주로 연구해오고 있다. 한국사의 사료나 인식이 얇아 직접적으로 논제와 관련된 사적 견해를 내놓을 계제(計除)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간 학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녕가야의 역사적 인식적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며, 반드시 현재와 같은 관점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지, 고녕가야에 대한 역사 서술의 특성과 인식들을 일별할까 한다.(2장) 그 까닭은 단순하다. 왕릉과 왕비릉의 위치를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와 전설은 ‘민족’이나 ‘후손’이라는 증거물을 남겨 놓고 있다. 그것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민족신화를 바탕으로 한 증거물이듯이<sup>2)</sup> 고녕가야의 태조 고로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3만 5천에 이르는 함창·함녕 김씨가 증거물이다. 그들

은 조상을 봉대하며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매년 오랜 옛날부터 해왔듯이 삼월 삼짇날을 전후한 가까운 일요일에 시조대제를 모시고 있다. 고령가야가 하루빨리 6가야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사적 대접받으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떠나 후손으로 조상을 모시고 후예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함창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 태조고로왕릉과 왕비릉의 역사 문화적 위치를 생각해보려고 한다.(3장)

## 2. 고령가야의 흔적과 아우라

고령가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이다. 한국의 역사를 “상대사(고대사, 고조선~신라말), 중세사(고려조), 근세사(近朝鮮, 최근<sup>3)</sup>)”으로 나눌 때 고령가야는 상대사(고대사)의 가야를 설명할 때 등장한다. 먼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고령가야 관련 기록과 가야의 건국에 관한 신화를 읽어보자.

“古寧郡 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古陵縣〕 景德王改名 今咸寧郡 領縣三 嘉善縣 本加害縣 景德王改名 今加恩縣 冠山縣 本冠縣〔一云冠文縣〕 景德王改名 今聞慶縣 虎溪縣 本虎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sup>4)</sup>

고령군은 본래 고령가야국이었는데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으로 삼

2) 윤용식·손종흠, 『구비문학개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2001), p.47.

3) 이병도, 『한국사대관』(보문각, 1964; 1969).

4) 『三國史記』雜誌第三 地理一.

았다.(일명 고릉현)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함령군으로 현을 셋 두고 있다. 가선현은 본래 가해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은 가은현이다. 관산현은 본래 관현(일설에는 관문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은 문경현이다. 호계현은 본래 호측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 그렇게 부른다.

또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는 김수로왕과 다섯 동생들이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는 기사를 전해주고 있다. 가락국기는 대강 3년 1077년 금관지주사 문인이 지었다고 하고 하는데,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하며 자춧빛 새끼줄을 타고 황금알[金卵] 여섯 개가 내려와서[天降] 임금에 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천강난생’의 설화적 요소로 가야의 건국이 설명되고 있다. 보편적인 민족 탄생의 설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고로왕의 출신에 대해 살펴보자. 가야 6국은 구지봉의 천부난생설화로 역사의 한편을 장식하고 있지만 『홍사한은』은 설화가 아닌 사실적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수로왕과 여섯 형제는 마한의 9세 영왕의 아들 문(이비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첫째는 청예(靑裔)로 금관에 도읍하였고, 차자 주일은 고령에 도읍하여 대가야라 하였고, 다음 아들 백예(白裔)는 함창에 도읍하니 고령가야이며, 다음 아들 현예(玄裔)가 함안에 도읍하니 아라가야요, 다음 아들 황예(黃裔)가 고성에 도읍하니 소가야이며, 다음 아들 홍예(紅裔)가 성주에 도읍하니 벽진가야이다.”<sup>6)</sup> 이 기록에 의하면 고로왕이 셋째로 나온다. 가야 6국은 마한의 후예라는 것으로 이 기록을 신뢰한다면 마한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지도 문제

5) 『三國遺事』(1281), 駕洛國記.

6) 반재원 역주, 『주해홍사한은』(한배달, 2017; 2012), p.281.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로로 김해지방에 이르렀다면 함창의 고녕가야는 김해에서 가장 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내륙을 따라 남하했다면 고녕가야는 낙동강의 상류 함창 부분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락(上洛, 尙州의 고명칭)의 ‘락’은 가락의 ‘락’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낙동의 동쪽에 터한 가야의 후예, 수로의 형제 자손들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분명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삼국사기』의 기사를 필두로 이어지는 역사서<sup>7)</sup>들은 대체로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이지만 『삼국유사』 ‘오가야’ 조에서 “古寧伽耶(今咸寧)”라고 하거나 동 조에서 본조사략에 “二古寧(爲加利縣)”<sup>8)</sup>이라고 하여 고녕가야의 위치를 ‘함령’과 ‘가리현’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이견들이 일차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이병도는 “진주인 듯”<sup>9)</sup>이라고 하고 있고, 김철준은 육가야 가운데 ‘고녕가야(?)’에 대해서만 ‘?부호로<sup>10)</sup> 위치 선정을 주저(?)하고 있다.

김태식은 “『삼국사기』 지리지 고녕군조의 기록으로 보아(위에 적시됨) 함녕 즉 지금의 상주군 함창의 옛 지명은 ‘고동람’이고, 이것을 경덕왕대에 한자식명으로 바꿀 때 ‘고녕’으로 고친 것으로 보이니 이것이 원래 ‘고녕가야’였다는 기록은 모순이다”고 하면서도 뒤이어 “5가야 중에 대가야

7) 『三國遺事』(1281), 『高麗史』(1451), 『星湖僊說』(1740), 『輿地圖書』(1757), 『咸昌懸邑誌』(1832), 『文獻攷略』(1794), 『大東地誌』(1863), 『咸昌郡邑誌』(1899),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 金相鎬, 「尙州의 古代國家, 古寧伽倻國」, 『鄉土史學』 15(향토사연구협의회, 2017), pp.39~41.

8) 『三國遺事』 五伽倻.

9) 이병도, 『한국사대관』(보문각, 1964/1969), p.63.

10) 김철준, 『한국고대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1993), p.30.

를 제외한 아라가야(합안)·고녕가야(합창)·성산가야(성주)·소가야(고성) 등은”이라고 하여 “고녕가야(합창)”을 부득불 표기하며 “모가야가 붙어 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sup>11)</sup>고 하고 있다. 하지만 김태식은 2011년 11월 29일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주체로 열린 ‘가야역사문화지구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가야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논문의 ‘참고자료 2’와 ‘참고자료 3’의 가야연맹 관련 국명, 지명 분포도에서 ‘합창고녕가야’를 적시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2)</sup>



그림 1 가야연맹 관련 국명 지명 분포 부분도(김태식)

- 11) 김태식, 『가야연맹사』(대정문화사, 1993/1996), p.73.  
 12) 김태식, 「역사적으로 본 가야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적 가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12.9; 김태식, 「역사적으로 본 가야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고녕가야』 10호(합창·합녕김씨대중회, 2013), 16~27. 재수록.

또 김태식은 동 논문 참고자료 2에서 고녕가야를 5가야 계통 소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북부가야 소국의 첫 번째(7#)에 배치하고 있다. 『삼국사기』 이래의 5가야에 기록되고 있는 ‘고녕가야’를 5가야 계통 소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북부 가야 소국의 첫 번째에 배치하고, 그 위치를 ‘경북 상주시 함창읍’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학술대회에서 김세기는 “고고자료로 본 가야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고녕가야 함창설을 부정하고 있다.

“오가야 명칭 중 고령가야는 고려시대의 함녕 즉, 지금의 함창지역인데, 고고학적으로는 묘제나 출토유물로 보아 가야지역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헌사학에서는 일찍이 신채호가 加羅를 大沼의 의미로 보고, 함창지역을 고령가야의 옛 땅으로 이해하였지만, 대체로 부정하는 편이다. 또한 『삼국사기』권34, 지리지에서는 “古寧郡은 본래 古寧加耶國이었는데, 신라가 빼앗아 古冬攬郡 (또는 古陵縣)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咸寧郡이다.”라고 하였다. 경덕왕 대 고령군은 본래는 고령가야국이었고, 신라에 의해 병합되어 고동람군 또는 고릉군이 되었다가 다시 고령군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도 대체로 수긍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함창에는 전고령가야왕릉과 전고령가야왕비릉이라는 비석과 봉토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 비석이 조선시대 후기에 세운 것이고 인근의 신흥리고분군이나 청리고분군의 발굴결과 묘제와 출토유물로 보아 신라고분이 확실하지만, 봉토분이 존재하고, 주변에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있어 일부에서는 가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헌과 고고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발굴자료가 가야가 아닌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13)</sup>

이영호 또한 “경북지역 가야유적의 세계유산 가치 검토”라는 경북지역 가야역사문화유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 학술회의에서 “상고기 상주지역 정치체의 성격-‘함창=고녕가야’설과 관련하여”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로 고녕가야 함창 위치 설을 부정하고 있다.

“고녕가야는 가야 제국 중 하나로 상주시 함창읍 일대를 무대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삼국사기』 지리지와 『삼국유사』 오가야 조에 기록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이 후일 신채호 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일찍이 부연됨으로써 더욱 확대된 느낌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함창=고녕가야’ 설은 그대로 믿기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우선 가야 당시에 ‘△△가야’란 국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녕군을 설명하면서 본래 고녕가야국이었던 것은 고려시대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침입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sup>14)</sup>

기성 학계에서는 ‘함창=고녕가야’ 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태식은 삼한 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여러 논문을 발표한 “이병도는 『삼국유사』 오가야조의 아라가야·대가야·성산가야·소가야·비화가야 등을 유사 찬자와 같이 지명을 비정하되 그 중의 하나인 고녕가야는 그 위

13) 김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가야역사문화지구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김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고녕가야』 10호(함창·함녕김씨대종회, 2013), 28~47. 재수록.

14) 이영호, 「상고기 상주지역 정치결사체의 성격」, 『경북지역 가야유적의 세계유산 가치 검토』, 경북지역 가야역사문화유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 학술회의 자료집 인용; 「상고기 상주지역 정치결사체의 성격」, 『고녕가야』 10호(함창·함녕김씨대종회, 2013), 48~54. 재수록.

치상 가야연맹의 일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화가야의 화전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 위치를 진주에 비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고녕가야를 가야연맹 속에 인정치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특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단순한 음상사(音相似)에 의거한 지명 고증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가야의 세력범위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려는 문제의식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병도의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가야 영역에 대한 기록에 그다지 엇매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문헌 고증 정신의 철저함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sup>15)</sup>

이렇듯이 기성 사학계에서는 ‘함창=고녕가야’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기성 학계에서 ‘민족주의 사학자의 견해’라 하여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신채호의 견해들은 과연 일고의 가치도 없을까. 물론 인사치레의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조선상고사』 서두의 평설들은 그냥 흘려보내기는 아쉽다. 제목만이라도 일별해 보자. 안세기는 “조선사학의 선구자 신단재”라고 하고 있고, 백낙준은 “근대한국정신과 사상의 선각자”라고 칭송하고 있으며, 이선근은 “민족사관의 확립”이라고 하고 있고, 홍이섭은 “아의 인식 투철한 정신사”라고 평하고 있다. 김철준도 “근대 사학성립의 기초”를 다졌다고 보고 있으며, 김용덕은 “민족사관과 그 최고봉”이라고 하고 있다. 천관우는 “민족사관 수립의 정초”, 이광우는 “민중주체의 최초 근대사학”<sup>16)</sup>이라고 평하여 근대사학과 민족사관을 정립한 것으로 평하고 있다. 주관적인 견해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해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단재는 대단군조선을 기원전 10세기경부터 5,600년 동안 전성시대를 누렸다고 하며, “단군의 원년 무

15) 김태식, 『가야연맹사』(대정문화사, 1993/1996), p.139.

16)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p.22-38.

진을 당요 25년이라고 하였으나 지나도 주소 공화(기원전 841) 이후에 연대를 적고 있다”고 하면서 단군 기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sup>17)</sup> 또 건국신화도 조선 고유의 신화가 아니라 불교 수입 이후에 불교도의 점철이 적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sup>18)</sup> 단재의 주장을 터무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삼한과 고령가야 등을 언어학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의 문제의식은 『삼국지』권30 위서 동이전의 한(진한)과 한(변진)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빛난다. 다음의 기사는 변진 12국을 소개하면서 진한 12개국과 섞여 기록되고 있다. 변진 12개국이라고 하면서 뒤에는 변·진한 합24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弁辰亦十二國，又有諸小別邑，各有渠帥，大者名臣智，其次有險側，次有樊濊，次有殺奚，次有邑借。有已祗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冉奚國·弁辰半路國·弁樂奴國·軍彌國(弁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湛國·弁辰甘路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馬延國)·弁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弁·辰韓合二十四國，

그것은 마한 신한 변한의 정착과 이동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때 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삼한이 국내에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 삼한에 대해 우리 학계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단재의 설명을 무조건 비과학적이라고 외면하기 어렵지

17)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p.100~101.

18)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p.99, 91.

않을까 싶다. 단재는 신한·말한·불한의 삼한은 고조선이 무너지고 신조선·불조선·말조선의 세 조선이 분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 도읍지를 하얼빈(아사달)·평양·안시성이라고 추정한다.<sup>19)</sup> 마한이 월지국(공주)로 천도한 뒤에 그 고도 평양에 낙랑국이 일어나고 북방에서 지나와 흉노의 난을 피하여 신·불 양 조선의 유민이 마한으로 날로 많이 들어오므로 마한이 금 낙동강 연안 우편의 백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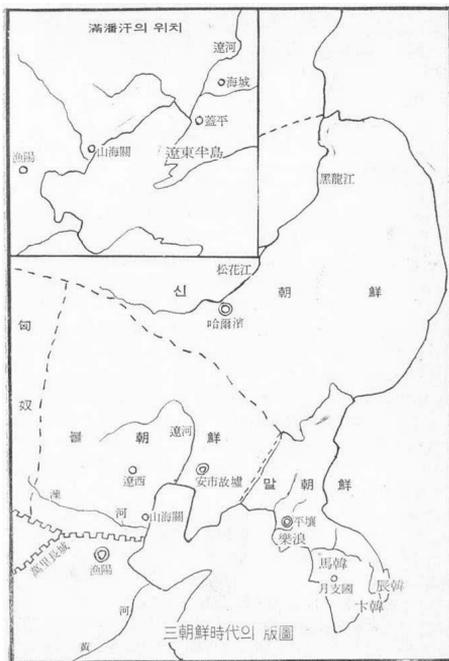


그림 2 조선상고사의 삼조선시대의 판도

리 땅을 나누어 신조선 유민을 주어 자치계(自治縣)를 세워 진한부라 칭하였다. 변한에는 신조선 유민들도 잡거하는 자가 많으므로 변진부라고도 칭하였다. 이를 ‘남삼한’이라고 한다.<sup>20)</sup>

다시 위의 삼국지의 기사를 읽어보자. “변한은 彌離彌凍·古資彌凍·古淳是·冉奚國·半路·樂奴·軍彌·彌烏邪馬·甘路·狗邪·走漕

19)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p.102~105. ‘신한’을 삼한의 진한을 감안해 ‘진한’으로 독음하자는 의견도 의미가 있으나 불한도 마한으로 읽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인용 저서에 따라 그냥 신한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117.

馬·安邪·瀆盧國 등 12부의 통칭이니, ‘彌凍’은 ‘밑’으로 읽고 수만(水灣)의 뜻이며, ‘고자(古資)’는 ‘구지’로 읽고 반도(半島)라는 뜻이며, ‘야(邪)’는 ‘라’로 읽고 ‘강(江)’의 뜻이다. 변한의 12부는 신라지리지와 가락국지에서 그 유지(遺址, 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고자미동은 고자군 지금의 고성만이요, 고순시는 고녕가야 지금의 상주 함창 간의 공갈못이니, 공갈은 고녕가야의 축음이요, 반도는 별로 읽으니 성(星)의 뜻이니 성산가야 지금 성주요, 구야는 가라로 읽으니 대지(大池)의 뜻이요 지금의 김해요, 안야는 아라로 읽으니 수명(水名)이니 지금의 함안이다. 위의 6국은 곧 후래에 가라옥국이 된 것이요. 나머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개 그 부근이다.<sup>21)</sup>

위의 12부 자치부(自治部)를 가라라고 칭하였는데 ‘가라’는 대소(大沼, 큰 못)이라는 뜻이다.<sup>22)</sup> 가야(伽耶)는 가야(加耶), 가라(加羅), 가락이라고도 하며 북방의 부여계 언어에 속한다.<sup>23)</sup> ‘가라옥국의 건설’에서 단재 신채호는 고녕가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고녕가야는 ‘고령가라’니 지금의 함창이요, 또한 천을 막아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적은 것인데 ‘고령가라’가 와전하여 ‘공갈’이 되었다. 지금의 공갈못은 그 유허(遺墟)이니 6가라 고적 중에 오직 이것 하나가 전해지고 있으며, 그 물속에 연화연엽이 오히려 수천년 전에 풍광을 말하는 듯하였다. 이조 광무 연간(1897~1906)에 총신 이채연(李采淵)이 논을 만들려 하여 그 제언(堤堰)을 터 아주 폐허가 되었다.<sup>24)</sup>

단재의 고녕가야의 해석은 탁월하다. 단재의 해석처럼 고녕가야는 전

21)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119.

22)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152.

23) 일연 지음·김원중 옮김, 『삼국유사』(을유문화사, 2002), 238쪽 주1.

24) 신채호, 『조선상고사』(인물연구소, 1982/1985), p.153.

설이 아니라 역사로 현재까지 그 증거물로 공갈못이 존재하고 있다. 이곳 상주 함창 사람들은 지금도 공검지라는 한자 표기 대신에 ‘공갈못’이라고 즐겨 부르고 있다. 구한말 폐허가 되었지만 이곳의 지역 유지들은 땅을 구입하여 공갈못을 다시 만들고 ‘공갈못’이라는 표지석을 높이 세워 놓고 선조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가라 가야가 큰 못이라는 풀이는 유목에서 정착의 농경생활로 전환하였다는 의미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치산치수의 차원에서 종족이나 부족의 지도자들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못을 만들었을 것이다. 해서 공갈못의 이름에 고녕가야의 축음이라는 탁전은 결코 흘러들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현존하는 공갈못이 고령가야 시기에 축조되었는지는 다른 문제가 있다. 공검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는 목부재와 목제시설인데 시기는 AD560~129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sup>25)</sup> 있기 때문이다. 추정 연대가 700년이라는 장기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공갈못 자리에 보수 또는 재축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갈못은 현재 국가지정습지보호지역으로 거듭 태어났다. 공갈못이 고녕가야의 왕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왕도골과 지근이다. 고녕가야의 지리적 역사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녕가야국의 중심지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은 함창읍 신흥리, 이안면 이안리, 가장리 일대라 하겠다. 이러한 추정은 함창현지에는 송덕산 아래에 옛 고녕가야 왕도가 있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송덕산은 공검면 율곡리와 이안면 가장리 경계에 있는 높이가 231m이다. 송덕산 동쪽으로 왕도골이 있는데 왕도골은 왕도동(王都洞), 왕도골이라고도 한다. 이안면 가장리에는 100여기, 이안리 5~6기, 함창읍

25) 김상호, 「상주역사이야기」, 『상주상공회의소』(상주상공회의소, 2020), p.8.

신흥리 50여 기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있고, 이안면 이안리에 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가 있다. 이러한 자료와 지명으로 볼 때 이안리 일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집단생활은 해온 근거지임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중심지는 동쪽으로는 함창읍 신흥리 오봉산(235m)과 남쪽으로는 이안면 이안리와 공검면 역곡리 경계에 있는 서산(192m)과 토파이고개(92m), 서쪽으로는 송덕산 북쪽으로는 이안천을 경계로 한 동서 2.5km, 남북 1.0km, 면적 2.2km<sup>2</sup>의 지역이 중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지의 동남쪽에는 남산고성이 자리하고 있다.<sup>26)</sup>



그림 3 고령가야국 추정 중심지(김상호 원고 재인용)

이제 왜 고령가야가 그 위치나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게 되었는데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령가야가 역사에 존속한 기간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태조왕이 임인년인 42년(신라 유리왕 18)에 건국하여 156년까지 115년간, 2대 마중

26) 김상호, 「상주의 고대국가, 고령가야국」, 『향토사학』 15(향토사연구협의회, 2017), pp.44~45.

왕은 병신년인 156년에 즉위하여 65년간, 3대 이현왕은 경자년 220년에 즉위하여 35년간 재위하고, 갑술년인 254년 7월 신라 첨해왕의 장수 병박이 침공하여 김해로 도읍을 옮겨 213년간 존립하였다는 설과 185년(신라 별휴왕 2) 8월에 별휴왕이 장사 구도(仇道)를 보내 고녕가야국을 취함으로써 144년간 존립하였다는 설이다.”<sup>27)</sup>

〈고녕가야국사적비〉에는 “고녕기원 원년(古寧紀元元年) 西紀 42년 신라(新羅) 유리왕(儒理王) 18년에 立國하여 동 첨해왕(沾解王) 9년까지의 約 213년 간 현(現) 함창(咸昌)을 중심으로 국권(國權)을 維持한 고대(古代) 부족국가(部族國家)이다”<sup>28)</sup>고 하여 기원 42~254년 동안 존립하였다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녕가야는 부족국가로 존립하였고 고대국가체제로는 전환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고대국가(古代國家)’라는 용어는, 고대와 중세 및 근대의 국가를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약간의 시대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가 적어도 몇 개 이상의 도시를 포괄할 정도의 넓은 영토와 그 안에 사는 많은 주민들을 일정한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그 가운데 고대국가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 통치 방법의 핵심이 왕(王)과 귀족(貴族)들에 의한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고녕가야는 3세기에 비록 운명을 다했지만 가야연맹은 6세기 중반까지 연맹체로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고대의 어엿한 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삼국시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고대사를 삼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로 불

27) 김상호, 「상주역사이야기」, 『상주상공회의소』(상주상공회의소, 2020), p.8.

28) 金錫夏 謹撰, 古寧伽倻國史蹟碑.

29) 金泰植, 「四國時代論」, 『한국고대사연구』 46(2007. 6), p.108.

려야 한다는 학계의 견해가 적지 않다.<sup>30)</sup> ‘사국시대’론은 한국고대사에서 단순히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미완의 제 문제뿐만 아니라 가야불교사 등 한국불교사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비록 부족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초기 6가야의 맹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고령가야의 역사적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계 일반에서 지적하는 고대국가로 나아가지 못했고,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고령가야의 축음이라는 ‘공갈뭇’이 있고, 비록 400년 전에 복원일지라도 고로왕릉과 왕비릉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후손 수만 명이 대종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시조의 능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 제례를 모시고 있는 문화 현상을 보면 고령가야는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역사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고령가야의 흔적과 문화 현상은 주류 사학계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역사의 한 모퉁이를 은은히 비추고 있다.

### 3. 태조왕릉과 왕비릉의 위치

‘고령가야태조왕릉’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7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1979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왕비릉은 태조왕릉 동쪽 300미터 정도 상거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태조왕릉구역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함창의 진산 작약산 맥의 끝자락이라고 한다.

---

30) 金泰植, 「四國時代論」, pp.102~102, 주1, 2참조; 불교사학자 고영섭 교수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상고시대를 ‘사국시대’와 ‘남북국시대’라고 명명하며 학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4 고로태조왕릉

그림 5 왕릉 안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왕릉은 왕릉과 제사구역으로 나뉜다. 왕릉은 ‘태조왕릉’이라는 작은 문으로 출입한다. 왕릉 앞에는 문인 무인석과 석양이 좌우에 시립하고 있으며, 중앙의 장명등 앞에 혼유석이 있고, 능 바로 앞에 ‘古寧伽耶國太祖王陵’이라는 능비가 서 있다. 왕릉은 봉토의 직경이 6.7m, 둘레 21m, 높이 3m 정도<sup>31)</sup>라거나 ‘현재 남아있는 왕릉은 봉토의 직경이 동서 14m정도이며 남북이 13m 정도’라고 하고 있다. 도보로 40여 보 정도 되고 앞의 수치는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보였다. 능의 앞에는 만세각(萬歲閣: 1930년대 건립)은 함창김씨 제사(齋舍)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지어져 있으며, 만세각의 정문은 맞배지붕으로 되었고 현관은 숭무문(崇武門)이다.

능의 입구 왼편에는 제사구역이 시설되어 있다. 주전 송녕전의 제사 구역은 자금문을 거쳐 가야문을 통과하여 송녕전에 이르게 된다. 또 그 오른편에는 영정을 모신 송정각이 자리하고 있다. 좌측에 태조대왕 오른 쪽에 왕비의 영정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가야문(伽倻門)을 지나 참도 오른편에는 제사관들이 시립 대기하는 표지석이 5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1) 이영호, 「상고기 상주지역 정치결사체의 성격」, 자료집 인용.



그림 5 고녕가야태조왕릉안내도

승녕전 마당 왼쪽에는 전사청(典祀廳)이 자리하고 있다. 제수를 마련해놓는 재실이어야 하는데 현재 제복을 보관하여 환복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고 종친회 부회장께서 말씀하셨다.

자금문과 가야문 사이에 고릉관이 세워져 있는데 종친회에서 회의 등을 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였다. 자금문(紫金門) 앞의 왼편, 고릉관 옆의 왼편에는 왕과 왕비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원래 묻어야 하지만 모서 놓고 있다고 하였다. 왕릉은 계좌(癸坐)이고 비능은 임좌(壬坐)라고 적혀 있다. 왕과 왕비의 좌향(坐向)으로 볼 때 왕과 왕후는 특정 지점의 끝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측하지 못했지만 왕도가 있는 후손이 살아가는 곳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한다. 일반적으로 남좌 여우의 안치와 반대로 비석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은 김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고 했다. 자금문과 가야문(伽倻門) 사이에 위치한 고릉관(古陵館)의 주련은 고녕가야 고로(古露) 태조왕의 역사와 공덕을 기리는 다음의 칠언 여섯 구가 걸려 있다.

古寧國二千年古都

이곳이 고녕가야국의 이천년전 고도이고

古露王百里創業地

시조 고로왕께서 창업하신 백리의 땅이로다.

大駕山高鹿鹿濯濯

대가산이 왕의 덕과 같이 높으니

그 덕화를 입은 암수 사슴들이 살찌서 윤택하고

上監池沈漁龍飛躍

상감지가 왕의 은택과 같이 깊으니

그 은혜 입은 용은 날아오르고 고기들은 뛰논다.

淨化聖域誠敬自在

시조의 성역을 정화하니 정성과 존경이 담겨 있고

賴及德化忠孝承傳

왕의 덕화가 미치는 데 힘입어

충과 효를 이어받아서 전한다.

김수로왕의 둘째 아우라고 알려진 고녕가야국의 태조 고로왕(古露王)의 덕화를 찬탄하며 대가산과 상감지의 유적을 언급하여 충효를 이어받았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능 구역과 제사 구역 담장 사이의 중앙은 통로 같은 모습인데 후대 시조를 모시는 데 공로가 있는 김하운 김세영 김집 세 분의 공로비가 서 있다. 후손들에 의해 왕릉이 정비되고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왕릉 앞에는 함창읍 증촌동 복지센터가 있고, 왼쪽



그림 6 고녕가야 태조왕비릉

옆에는 함창(녕)김씨 대종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마을에 있어 왕릉에 후손이나 참배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보였다. 왕릉의 안내 구역에는 슬로시티 표지판이 자리하고 있다. 느리게 살자는 운동은 마치 고녕가야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에서 복원하려는 의지에 혼수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려진 과거사를 문헌이나 자료의 고증을 통해 설명하는 전통 학계 앞에 의미 있는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내놓아야 하는 일 또한 슬로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릉 구역의 오른쪽을 조금 지나 마을 길을 굽이 돌며 왕비릉이 나온다. 왕비릉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 들어갈 수는 없었다.릉의 정문에는 ‘太祖王后陵’이라고 현판이 달려 있고 측면에서 바라보았지만 능역의 규모만 왕릉보다 조금 작아 보였다. 석물 등의 배치는 왕릉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다음의 태조왕릉 개요에는 왕릉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릉(陵)은 서기 42년 낙동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6가야(六伽倻) 중

하나로 함창(咸昌)·문경(聞慶)·가은(加恩) 지방을 영역으로 하는 古寧伽倻의 태조 고로왕(太祖古露王) 왕릉이다. 조선(朝鮮) 선조(宣祖) 25년(1592년) 당시 경상도 관찰사(觀察使) 김수(金睟)와 함창현감(咸昌縣監) 이국필(李國弼) 등이 무덤 앞에 묻혀 있던 ‘古寧伽倻國王陵’이라 음각(陰刻)된 묘비(墓碑)를 발견하여 古寧伽倻王陵임을 확인했다. 조선 숙종(肅宗) 38년(1712년)에는 왕명으로 묘비와 석양(石羊) 등의 석물(石物)을 건립하였으며, 그 뒤 후손들에 의해 여러 차례 묘역(墓域)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태조의 왕릉을 서릉(西陵), 왕후릉(王后陵)을 동릉(東陵)이라 한다.

왕릉은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원형 토분으로 약간 구름진 지대 8,616 m<sup>2</sup>의 넓은 공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능 앞 50m 지점에 재실인 만세각(萬歲閣)이 있다. 왕릉이 있는 증촌리는 문경의 영강과 상주의 이안천에 의해 형성된 윤직, 영순동의 평야와 오사, 오동, 증촌리 등의 해발 60m의 평야 중심부에 형성된 해발 80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왕릉은 이안천 건너편 남산의 남산고성과 신흥리 고분군을 마주 보고 있다.<sup>32)</sup>

다음의 보고 자료는 왕릉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고녕가야(古寧伽倻) 왕릉이 위치하는 곳은 함창읍의 중심부로서 함창읍 전체로 보아서도 거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 왕릉 주변에 형성된 대표적인 고분군이 신흥리 고분군이다. 함창지역이 고령가야로 비정되고 있는 것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함창읍 건치연혁조에 “본고령가야국(本古寧伽倻國)”이라는 기사가

<sup>32)</sup> 김희근(함창김씨종친회 사무국장) 제공자료, 「함창의 고대국가, 고녕가야국」, p.1.



그림 7 함창읍지의 왕릉과 왕비릉

보인다. 이 외에도 『함창읍지』에는 “고령가야의 태조가 김해의 구지봉에서 6개의 금란 중에서 탄생한 분들 중의 한사람”이라고 하였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의 하권에는 “이 능이 구전되다가 1592년에 이능의 묘비가 발견됨으로써 고령가야왕릉임 이 밝혀졌다”고 한다. 전 고령가야왕릉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현재 보존되어 있는 왕릉이 전 고령가야왕릉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록들이 전부 조선시대 이후에 쓰였다는 사실과 현재의 고대사에 대한 연구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가야국들이 고령(高靈) 이남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고령가야의 함창설에 문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왕릉은 봉토의 직경이 동서 14m 정도이며 남북이 13m 정도이다. 능의 앞쪽에는 많은 석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조선시대에 왕명에 의해 조성된 것도 있다.<sup>33)</sup>

33) <http://www.heritage.go.kr/heri/cul/hubBankDetail.do?expId=20151007000000417971>.

위 태조왕릉에 대한 두 종의 개황은 왕릉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태조왕릉은 적어도 16세기 말까지는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릉에 관해 전해오는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묻혔다고 할 수 있는 묘비를 찾아냈다고 보인다. 찾지 못했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잊고 있었다면 찾으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다가 발견된 사례는 고녕가야태조왕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가야 10대왕으로 김유신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산청의 전 구형왕릉의 경우도 후대에 발견되어 1971년에 문화재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산음헌 산천조에 ‘왕산(王山)’이 있고 그 각주(脚注)에 “현의 40리 산중에 돌로 쌓은 구룡이 있는데 4면에 모두 층급이 있고 세속에는 왕릉이라 전한다.”라는 기록에 있다. 이 무덤을 구형왕릉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홍의영(洪儀泳)(1750~1815)의 『왕산심릉기(王山尋陵記)』에 처음 보이는데, 근처에 있는 왕산사에 전해오고 있는 『산사기권』에 구형왕릉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였다. 다른 자료인 『산청현유지』에는 정조 22년(1798년)에 처음으로 왕릉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홍의영의 『왕산심릉기』에 이 “왕릉이 처음 나타났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하기로는 약 200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오다가 왕산사에서 비를 피하던 중 왕산사 법당 들보 위에 있는 내력을 알 수 없는 큰 목궤를 민경원이란 사람이 내려 보았더니, 그 속에서 구형왕과 왕비의 영정과 옷, 활, 칼 등의 유물과 함께 명승 단영(坦溟)의 왕산사기(王山寺記)가 나와서 이를 가지고 왕릉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선 정조 17년(1793년)에 덕양전을 짓고, 이후 봄가을로 추모제를 지낸다.<sup>34)</sup>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태조왕릉은 16세기 말에 발견되고 18세기 초 왕명에 의해 복원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태조왕릉과 왕비릉은 여타의 다른 유사 왕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림 8 산청 전 구형왕릉

태조왕릉과 왕비릉이 17세기에 복원되었으므로 왕릉의 크기나 석물의 설치 등은 당시를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의 수로왕릉이나 왕비릉과는 또 어떤 지리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특징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김태식은 「역사적으로 본 가야 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의 ‘참고자료 1’ 가야 관련 국가 사적에서 왕릉 및 시조 탄생지 네 곳을 제시하고 있다. 김해수로왕릉, 수로왕비릉, 산청전 구형왕릉, 김해 구지봉이 그것이다.<sup>34)</sup> 대가야의 지산동 고분군의 왕릉은 고분군으로만 분류해놓고 있다. 물론 고로왕릉은 이 분류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태조왕릉과 위치나 조형 등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수로왕과 왕비릉의 상거한 거리나, 구형왕릉의 모습 등이 비교될 수 있다.

먼저 능의 위치와 왕과 왕비릉의 상거이다. 수로왕과 왕비릉은 남북

<sup>34)</sup>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52XXXX126595>.

<sup>35)</sup> 김태식, 「역사적으로 본 가야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적 가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12.9.

으로 1.3km 상거하고 있으나 태조왕릉과 왕비릉은 불과 3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다. 왕비릉이 수로왕릉보다 봉분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왕비의 세력이 장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태조왕릉보다 왕비릉이 조금 작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설물인데 수로왕릉에는 문·무인석 4인이 있으나 석수상은 보이지 않고, 왕비릉에는 능비와 상석만 있을 뿐이다. 태조왕릉은 문무인과 석수 2상이 시립하고 있다. 수로왕릉과 왕비릉, 태조왕릉과 왕비릉은 봉분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고흥왕릉은 돌무덤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석상과 장명등이 시설되어 있으나 오로지 돌로 무덤이 되어 있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무덤이나 담장을 쌓은 모습에서 그 위엄보다는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다.

그렇다면 태조왕릉과 왕비릉의 위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위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지리적 물리적 위치이고, 다음은 사회적 문화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왕릉은 계좌(癸坐)이고, 비능은 임좌(壬坐)라고 하였다. 서와 동쪽의 계좌와 임좌에 있게 되면 능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 특정 지역의 양 끝에 시선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위치로 볼 때 왕비는 오봉산을 왕은 승덕산 쪽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들은 그 두 곳을 바로 보면 누워 있을까. 아니면 왕과 왕비를 두 곳을



그림 9 왕릉과 왕비릉의 좌향

향하도록 안장하였을까. 무덤 조성 당사가 태조왕과 왕비 사후 직전인지 아니면 복원할 때의 사상이 투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왕과 왕비의 좌향은 무언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인간의 역사가 자손 번성으로 이어졌다면 그들의 도읍지를 안고 있는 형태를 자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추정해 볼 뿐이다. 후손의 번성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진대 고령가야가 200여 년 만에 운명이 다해서 후손들이 사민(徙民)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계대의식(繼代意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라가 망했더라도 조상을 잊지 않고 조상을 잇는다는 계대의식은 그 후손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고로왕의 후손은 현재 함창·함녕김씨대중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받드는 중시조는 고려 초기 활동한 덕원군 김종제·덕양군 김종계 형제이다. 이에 관한 사적비를 읽어보자.

왕손(王孫)은 실국(失國) 以後 대다수(大多數)는 가야연맹(伽倻聯盟)의 각국(各國)으로 이산(離散)하고 혹은 백제(百濟)로 망명(亡命)하였으며 일부(一部)는 고국(故國)과 주변에 은둔(隱遁)하면서 투쟁(鬪爭)을 繼續하다가 신라(新羅) 유례왕(儒禮王) 십년(十年, 293)에 신라(新羅)가 고령가야(古寧伽倻)와 사벌국(沙伐國) 유민(流民) 중 항거(抗拒)하는 왕족(王族)과 호족(豪族) 80餘家を 영덕(盈德)의 사도성(沙道城)으로 이주(移住)시켰는데, 그때 추방(追放)된 일파(一派)에서 고려(高麗) 인종(仁宗)때 출생(出生)하여 현달(顯達)한 덕원군(德原君) 휘(諱) 종제(宗悌)와 덕양군(德陽君) 휘(諱) 종계(宗繼) 형제(兄弟)를 중조(中祖)로 하여 새로이 문호(門戶)를 열었으며 그 후(後) 의산군(宜山君) 휘(諱) 세순(世珣)의 宗派와 어사공(御使公) 휘(諱) 균(鈞)에 지파(支派)의 자손(子孫)이 조선(祖先)의 음덕(蔭德)과 왕손(王孫)의 긍지(矜持)를 굳건히 지키며 오늘에 이르렀다.<sup>36)</sup>

3세기 신라의 사민 정책으로 고향 땅을 떠났지만 후손들은 고조선의 음덕과 왕손의 궁지를 잊지 않고 지켜왔다. 대표적인 또 한 분으로 중시조 이래 8대손 김택(金澤)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택은 목은 이색의 외조부이기도 한데, 대대로 사민(徙民)된 영덕군 영해면의 괴시 마을에 살았다. 하지만 사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가야의 옛터전인 함창(현 사벌면) 덕가리에 묻혔다. 재실(大井齋)과 무덤이 잘 보존되고 있다. 1940년 세운 묘비에는 '고령기원 일천팔백구십구년경진사월'이라는 입비(立碑) 연도가 적혀 있다. '고령기원'을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산 이씨 목은 이색이 영덕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아버지 이곡이 김택과 학문적 교유를 하며 김택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기 때문인데,<sup>37)</sup> 김택의 학문적 인품이 지대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수로왕의 둘째 (혹은 셋째) 동생이라고 알려진 고로왕의 왕릉과 왕비릉은 고령가야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 후손들은 조선의 음덕과 왕손의 궁지를 굳건히 지니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왕릉 앞의 대종회와 고릉관은 그 중심이라고 보인다. 고령가야의 왕도가 송덕산 아래에 있었고 그 남쪽에 공갈못이 있는데, 왕릉과 왕비릉은 왕도의 양끝을 바라보면 후손들을 외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하지만 무려 천여년이 지난 뒤의 후손이 그 고향에 묻히려고 돌아오는 모습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왕릉과 왕비릉이 함창의 증촌리에 터하고 있다고만 할 수는 없다. 왕릉과 왕비릉은 적어도 함창·함녕 김씨 후손들

36) 김석하 찬, 『고령가야국사적비』.

37) 지정, 함창고령가야 역사찾기 12 - 목은(牧隱) 이색과 괴시(槐市)마을, <문경타임즈>, 2021.3.23.

의 마음에는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함창(함녕)김씨대종회를 구성하여 시조 고로왕을 잊지 않고 고녕가야의 유적인 태조 왕릉과 왕비릉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매년 음력 3월 15일과 10월 1일 태조대왕 대제를 봉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음력 3월 3일(삼짇날)에 즈음해서 대제를 받들어 모시고 있다.<sup>38)</sup> 대제를 봉행하는 승녕전에는 제상과 신주를 모시는 교의(交倚)가 놓여 있다. 교의는 신좌교의(神座交倚)라고도 하는데 현재 교의의 사용이 조금 달라져 있다고 보였다. 후손들이 조상을 잊는 계대 의식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상의 숭배는 예를 떠나 나를 완성하게 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충의 마음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릉과 왕비릉의 위치는 물리적 위치를 떠나 그것을 잊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녕가야국 고로태조왕릉과 왕비릉은 700리 낙동강의 동쪽 소백산맥의 아래 함창 벌판에 있다. 그들이 세운 고녕가야는 2000년에 가까운 세월 전에 이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며 살다가 후손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렇지만 후손은 시조를 마음에 담고 무덤에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고로왕과 왕비는 별 좋고 평화로운 곳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잠들어 있다. 왕릉과 왕비릉이 갖는 역사와 사회문화적 위치는 오늘의 우리들이 대하는 데 따라서 새롭게 자리매김해나가게 되지 않을까 한다.

---

38) 김희근 제공자료, 「함창의 고대국가, 고녕가야국」, 1.

#### 4. 결어

‘전’고녕가야왕릉과 왕비릉의 위치라는 주제 아래 ‘고녕가야의 흔적과 아우라’, ‘고로왕릉과 왕비릉의 위치’라는 장목을 설정하여 논의를 펼쳤다. 기록의 빈약 속에 역사와 신화가 혼재된 상태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적지 않은 것 같다. 1990년대 어느 방송에서 “환단고기”를 반영하려고 기획하니 ‘중지해달라’는 역사학계의 요청이 있었다는 그 방송의 서두 대사를 보았다. 실증의 분명한 역사가 아닌, 환상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역사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역사학자들의 견해 때문일 것이다.

고녕가야의 도읍이 함창일 수 없다는 그간의 역사 인식 속에서, 태조왕릉과 왕비릉이 적어도 400년 이전에 복원 정비되어 있고, 『삼국사기』를 위시한 후대 사서의 한결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함창의 고녕가야는 역사의 중심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일부 전문가는 적어도 고녕가야의 근거지가 함창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고녕가야 함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고녕가야가 200여 년 정도밖에 존속하지 못했고, 객관적 증거물을 남겨놓지 못하였거나 발굴되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유물 유적이 공인받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렇지만 상고의 시대, 역사는 삶의 문화로 남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화로 각색되었지만 인간의 삶으로 분명하게 전개되었다. 공갈못의 공갈이 고녕가야의 음악이라고 파악한 신채호의 고녕가야 함창설은 설득력이 적지 않다. 가야가 가라 가락의 뜻으로 대소(大沼)라고 하는 일반명사라고 할 수 있으며, 고녕가야가 ‘공갈’로 축약 변음(變音)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농경문화의 수리(手理) 시설을 통한 삶과 지배 체제와 관련될 수 있다. ‘공갈못’은 삼한시대 축조된 못이라고 하지만 발굴된 자

료는 6~12세기 부재라고 해서 후대에 축조되었다고만 할 수 없고 유지보수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녕가야의 왕도로 알려진 왕도골과 대가산 등 고녕가야 왕들과 관련한 지명은 고녕가야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 ‘공갈못’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갈못’이 고녕가야의 초기 모습이라고 한다면 왕도는 그곳의 북쪽에 있고 왕릉은 다시 더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후대 고녕가야의 강역이 왕도의 북쪽으로 비정되고 있는 점도 조금 의아스럽지만 ‘공갈못’과 ‘왕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영역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한다.

고로왕릉과 왕비릉은 16세기말 비석이 발견되어 복원되었는데, 김수로왕과 왕비릉과 달리 동서로 자리하고 있는 점이 다르며, 왕비릉에도 왕릉과 똑같이 석물을 안치하고 있는 점이 김해 보주태후릉과 다르다. 동서로 자리하고 있는 태조왕릉과 왕비릉은 독특한 좌향을 하고 있다. 서쪽의 왕릉은 계좌(癸坐)를 하고, 동쪽의 왕릉은 임좌(壬坐)를 하여, 200여 미터 상거(相距)한 왕과 왕비가 마치 여덟팔자(八) 형식으로 왕도와 왕도 앞의 고분군을 바라보며 후손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형국이다. 이는 남북으로 배치한 수로왕과 왕비릉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왕릉과 왕비릉의 위치와 좌향이 당시부터 그랬는지 16세기 이후 정비되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모습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3세기 중반에 사라진 고녕가야이지만 고로왕의 후예들은 조상을 잊지 않고 왕릉과 왕비릉을 지키며 2천여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번성해나가고 있다.

별 좋고 평화로운 곳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잠들어 있는 왕릉과 왕비릉은 복원되었지만 고녕가야의 역사는 아직도 그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향후 유의미한 자료의 발굴로 그 역사적 위치를 바로 찾을 때 결락된 우리 상고사의 한 부분이 메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星湖僊說』  
『輿地圖書』  
『咸昌懸邑誌』  
『文獻攷略』  
『大東地志』  
『咸昌郡邑誌』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金錫夏 謹撰, 古寧伽倻國史蹟碑.
- 김철준, 『한국고대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1993.  
김태식, 『가야연맹사』, 대정문화사, 1993; 1996.  
반재원 역주, 『주해홍사한은』, 한배달, 2017; 2012.  
신채호, 『조선상고사』, 인물연구소, 1982; 1985.  
윤용식·손종흠, 『구비문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2001.  
이병도, 『한국사대관』, 보문각, 1964; 1969.  
일연 지음·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 金相鎬, 「尙州의 古代國家, 古寧伽倻國」, 『鄉土史學』 15, 향토사연구협의회, 2017.  
김상호, 「상주역사이야기」, 『상주상공회의소』, 상주상공회의소, 2020.  
김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가야역사문화지구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金泰植, 「四國時代論」, 『한국고대사연구』 46, 2007. 6.  
김태식, 「역사적으로 본 가야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적 가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12.9.

이영호, 「상고기 상주지역 정치결사체의 성격」, 『경북지역 가야유적의 세계 유산 가치 검토』, 경북지역 가야역사문화유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 학술회의 자료집 인용.

이영호, 「상고기 상주지역 정치결사체의 성격」, 『고녕가야』 10호, 함창·함녕 김씨대종회, 2013.

지정, 함창고녕가야 역사찾기 12- 목은(牧隱) 이색과 괴시(槐市)마을, 〈문경 타임즈〉, 2021.3.23.

<http://www.heritage.go.kr/heri/cul/hubBankDetail.do?expld=20151007000000417971>.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52XXXX126595>.

## The location of the Royal Tombs and Queen Consort's Tombs of Gonyeong-Gaya on 'a folk tale'

— The distance between its history and its recognition —

Lee, Seong-woon /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Moon, Ki-jo / Ven, The World Buddha Academy

This writing considers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 location of the Royal Tombs and Queen Consort's Tombs of Gonyeong-Gaya on 'a folk tale (傳)'. Its historical record is not only poor but also include its myth, which makes a wide gap between its viewpoints

There has been the historical recognition that the capital of Gonyeong-Gaya cannot have been Hamchang and the constant criticism of later history books, including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royal tombs of King Taejo and his Queen were restored and maintained at least 400 years ago. Nonetheless, Gonyeong-Gaya to have been located in Hamchang was not even discussed as a historical fact.

Although the history of Gonyeong-Gaya was adapted into a myth, it clearly shows human life. Shin Chaeho's assertion of Gonyeong-Gaya in Hamchang, which explains that the word Gonggal in Gonggal pond was the abbreviation of Gonyeong-Gaya, is quite persuasive. The

toponyms related to the kings of Gonyeong-Gaya, such as Wangdogol known as its royal capital and Daegasan show clear traces of Gonyeong-Gaya, and Gonggal pond is located in its center.

The royal tombs of King Goro and his Queen were restored in the late 16th century when their tombstones were found. The royal tombs of King Taejo and his Queen are located east-west with the eastern royal tomb at 1 o'clock in the north and the western one at 11 o'clock in the north, in the form of the Chinese character eight (八) 200 meters away from each other, which takes the shape of protecting the royal capital and the ancient tombs in front of them. It is unknown whether their location and direction in feng shui today were from their construction or their restoration after the 16th century, but it is at least as it is today.

Gonyeong-Gaya was destroyed in the mid 3rd century, but the descendants of King Goro do not forget their ancestors, protect the royal tombs of their kings and queens, and are prospering through about 2,000 years of history.

**Key words:** Gonyeong-Gaya, the Royal Tombs and Queen Consort's Tombs of Gonyeong-Gaya on 'a folk tale (傳)',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ix Gayas*, Gonggal pond.

원고접수: 2021-11-20

심사완료: 2021-12-19

게재확정: 2021-12-23